

# 임시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7년 11월 20일 (월) 09:00-11:30

□ 개최장소 : 이랜드복지재단 회의실

□ 총이사수 : 8명

□ 출석이사 : 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윤형주 이사, 배극수 이사, 박영희 이사 이상 5명

□ 개회선언

▶ 이경준 이사장 :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 5명이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2017년도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임시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1호 의안> 이랜드복지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자산 유가증권 처분 심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이번 임시 이사회는 9월 15일 개최한 안건과 동일하며 이사회 개최 고지 기간이 부족하여 하기 안건에 대해 이사회를 재 개최합니다.

그럼 처음 안건으로 이랜드복지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자산 유가증권 처분 심의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영일 국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영일 국장 :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랜드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리드에 대한 지분을 이랜드월드로 100%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합병 등의 절차 진행시 간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재단은 1.58%의 소액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 의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진행하고자 하여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현재 재단은 (주)리드 주식으로 기본재산 500주, 보통자산 5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의 처분에 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 윤형주 이사 : 처분 시 환산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 정영일 국장 : 네 처분금액은 기본재산 및 보통자산 포함 1,000주에 약136,612,000원 정도입니다.

▶ 이태웅 이사 : 기본재산 500주는 처분 시 어떻게 처리 됩니까?

▶ 정영일 국장 : 네 처분 심의가 통과 된다면 다음 안건으로 처리될 정관변경을 통해 기본재산 예금으로 전환되어 관리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경준 이사장 : 없으시면 이랜드복지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자산 유가증권 처분 심의 건에 대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이랜드복지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자산 유가증권 처분 심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제 2호 의안> 봉화군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종료 심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다음 안건으로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인 봉화군노인복지관 수탁 운영을 종료하고자 하여 상황을 알려드리고 최종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영일 국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일 국장 : 우리 법인에서 2017년 2월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봉화군노인복지관을 중도 반납하고자 합니다. 봉화군노인복지관은 올 초 정기이사회 때에도 보고 드렸었던 재단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최초 봉화군에서 위탁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상 재단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나 군에서 삼고초려로 간곡하게 요청을 해왔고 군수님을 비롯한 봉화군 관계자들의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하였기에 농촌지역 복지관의 경험은 없지만 수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장기간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나 더 이상 운영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판단하여 위탁 반납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박영희 이사 :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가요?

▶ 정영일 국장 :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리해서 몇 가지 크게 고려한 사항들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최초 봉화군노인복지관을 수탁할 때 가졌던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다른 이랜드복지관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재단이 그동안 여러 복지관들을 순차적으로 개관, 운영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빠른 기간 내에 봉화군노인복지관을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수탁 1기를 보내면서 수탁 시 이사님들이 요청하셨던 <농촌 격오지의 성공적인 농촌노인복지관 개관>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판단되고 이제는 지속경영 여부를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탁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기관장과 중간관리자의 부족문제 때문입니다. 신규 개관한 기관이라서 관리자들을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장기간 파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농촌복지관이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문제도 민감한 이슈인데 적합한 직원을 선발하는데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한계성으로 우리와 적합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에 어려움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수탁 2기로 접어들었지만 복지관내에 우리 조직의 가치와 문화가 안착이 안 되고 있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탁월한 서비스 품질 및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랜드복지재단의 사명인 '소외된 사각지대를 돕는다'는 관점에서 노인세대의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정부의 노인복지 강화정책이 향후 우리 재단의 노인복지관 경영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핵심역량을 발휘하여 10년 앞을 내다보며 탁월한 수준의 노인복지관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 풀과 역량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하 노인복지관 경영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비전 수립을 해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작게는 원거리상의 문제인데 법인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관리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산하 복지관에 집행하는 법인 전출금의 원활한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윤형주 이사 : 봉화군과 다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 정영일 국장 : 봉화군과의 어려움 때문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린 문제들이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봉화군복지관은 우리 재단이 아니라 다른 법인이 수탁을 받아 운영해도 이제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극수 이사 : 중도 반납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나요?

▶ 정영일 국장 : 봉화군에서는 강력하게 남은 위탁 기간까지 운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봉화군에 우리 재단의 어려움을 잘 전달했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금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개관 및 지난 4년 동안 성심을 기해 최선을 다했기에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법무적인 검토도 하였는데, 위탁 계약서가 갑(봉화군청)에 유리하게 작성된 내용이긴 하지만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시다.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새로운 다른 법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이제는 복지관 운영상에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이태웅 이사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 정영일 국장 : 봉화군과 세부적인 것은 논의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통상적으로 중도 위탁이 진행되는 경우 고용승계를 하고 있고 현재 직원들도 대부분 봉화나 인근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직원들이라 재단 산하 다른 복지관으로 이동소요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영희 이사 : 수탁운영종료에 대해 봉화군과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 정영일 국장 : 현 상황에 대해 시에 잘 설명하여 군과 위.수탁 종료가 협의가 될 경우 이후 수탁법인이 결정될 때까지 그 동안의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기에 최대한 협력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예정입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기타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윤형주 이사 :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니 현 상황으로 볼 때 봉화군에서 현재와 같이 우리 법인이 계속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운영종료에 찬성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봉화군노인복지관 수탁 운영 종료 심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제 3호 의안> 2017년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다음으로는 2017년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영일 국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일 국장 : 구체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법인 산하기관인 이랜드하당재가센터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전입금의 감소 및 사무비, 사업비 조정 등 예산 변동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 <2017년 추가경정예산>

이랜드하당재가센터 : 108,752천원

▶ 이경준 이사장 :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17년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없으시면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2017년 이랜드복지재단 산하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이상으로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임시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 11시 30분

2017년 11월 20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

이사장 이 경 준



이 사 이 태 응



이 사 윤 형 주



이 사 배 극 수



이 사 박 영 희

